

공기업 직원 불법 숙박영업 '구설수'

무허가 영업하며 손님 모객·대금 관리 맡아 펜션 건물은 같은회사 근무 남편·친척 명의

제주에서 한 공기업 직원이 불법 숙박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문제의 숙박업소는 안거리와 박거리로 된 제주 전통가옥 구조를 살린 독채형 펜션으로 서귀포시에 있다. 독특한 집 구조와 아기자기한 소품 등이 입소문을 타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인기를 끌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 숙박업소의 이름을 치면 이용 후기 수십개가 검색된다. 지난해 4월 올라온 글이 가장 오래된 이용 후기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은 그 이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숙박업소는 대표 전

화번호나 홈페이지를 두지 않고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연락한 손님만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숙박업소는 관할 시청에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다. 또 그동안 SNS를 통해 손님을 모객·관리하고, 이용대금을 받는 이른바 '호스트' 역할을 공기업 직원인 A씨가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펜션 건물은 B씨와 B씨 친척 명의로 돼 있는데, B씨와 A씨는 부부 사이로 같은 공기업에서 일을 하고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직원은 영리 목적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한다.

A씨는 개인적 이익을 바라고 펜션 영업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A씨는 "실질 운영자는 시어머니"라면서 "시어머니를 도와려고 한 일이지 개인적으로 돈을 벌려고 운영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손님에게서 받은 돈도 모두 시어머니에게 줬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시청 측이 건물 구조상 민박으로는 영업할 수 없다고 해 다른 방법을 찾던 중이었다"면서 "이유야 어찌 됐건 잘못했다"고 말했다.

B씨는 아내가 그동안 손님 모객 등에 관여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B씨는 직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사부서에서 근무한다. B씨는 "아내가 손님을 모객했다면 어머니를 단순히

도우려고 한 것이지 이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라 부라 현장 확인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오늘(29일) 문제의 숙박업소를 찾아 투숙객들로부터 진술을 받았다"며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숙박 대금이 정확히 누구에게 흘러 갔는지 등은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자 올해부터 경찰 고발에 더해 영업장 폐쇄와 세무서 고발 등의 조치도 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음주 들통 경찰, 구속영장 신청... "동승자 2명도 처벌"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환경미화원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의 음주 사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신씨(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47분쯤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모(72)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발생 1시간 40여분이 지난 오전 8시25분쯤 지나가던 행인이 얼굴과 다리 등을 크게 다친 김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는 호흡·맥박이 없는 김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차량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해 이날 오후 3시44분쯤 사고 발생 9시간만에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신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안되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신씨의 음주운전 판단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일행과 함께 이날 오전 1시쯤 술집으로 들어간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하자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신씨 일행이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적용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응급환자 소생 위해 영상 상담서비스 시작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심정지 등 응급환자 소생을 향상을 위해 '응급처치 이미지 영상 상담서비스'를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응급처치 이미지 영상 상담서비스'는 119로 신고된 응급상황을 대상으로 최초 신고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집합별 응급처치를 음성안내와 구체적인 행동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최초 신고자가 정확하고 빠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서비스에 제공되는 영상 이미지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제세동기 패치 부착 위치, 그리고 기도폐쇄의 하임리히법 등이며 신고자 중 영상통화에 동의하거나 2인 이상 경우에 대해 운영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의 응급처치 방법 이해를 돕고, 응급환자 발생시 119도착 전까지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해상안전 기원합니다" 29일 제주시 화북포구 해신사에서 해상안전과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해신제가 봉행됐다. 이상국기자

"생태계 변화, 제주 농·수산업 직접 피해"

환경운동연합 보고서 발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 지역 생태계 변화 문제가 농·수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제주도가 추진하는 "2019 기후변화적

응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2019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생태계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빈번해진 아열대성 조류 출현 ▷아열대성 어종 출현빈도 증가 ▷홍조류 확산에 꺾음 심화 ▷아고산대 식물 피해 증가 ▷조릿대 고지대 점령 ▷벚꽃 개화시기 변화 ▷양서류 이력 산란시기 도래 등 제주도의 기후변화가 실

제로 제주도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러한 생태계 변화는 단순히 생태계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농·수산업에는 직접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며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없는 이같은 문제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기후 위기에 취약한 분야를 우선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석기자

여교사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중요·사회적 멘토 관계를 빌미로 접근해 여교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27)씨를 수심분격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27)씨를 수심분격 30년을 선고했다.

거나, 기흥에 이르게 만드는 등의 중상을 입히고,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우체부로 소개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자신의 집에서 청소 등을 시키고, '하느님의 뜻'이라며 주먹을 휘둘렀다. 숨진 A씨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벗어날려 했지만 김씨에 의해 살해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산지 대설주의보... 오늘까지 3~8cm

산간지역 외 가끔 비

제주지방기상청은 29일 오후 1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예상 적설량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0일까지 3~8cm이다.

29일 현재 지점별 적설량은 한라산 어리목 0.3cm, 진달래밭 2.2cm, 윗세오름 2cm 등을 기록중이다.

한편 산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30일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북부지역에 이날 시간당 5mm 이하의 비가 가끔 내리겠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5~20mm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30일까지 산지 중심으로 안개나 박무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짧은 것으로 보인다"며 "산지와 5·16도로, 1100도로 등 주요 산간도로에서는 쌓인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그랜드보청기

설날맞이대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너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뱅크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해외.영농 투자자 모집

사업명 : 제주한라봉.레드향.감귤농장

- 영농지역 : 베트남.다낭 (땅남성)
- 사업규모 : 300ha (약100만평)
- 영농투자인원 : 5~6인 선착순
- 투자금액 : 1인당 10만usd 1억2천만원
- 투자자 : 1인1ha (3천평). 현지. 국제. 변호사공증. 본인명의
- 사용기간 : 50년간
- 소득 : 2년 경과후 3만usd 보장
농장매매 및 상속가능
재해보험가입가능 (주.정부행정지원)

문의 상담 : 제주시 봉개동 (황금농원)
H.p. 010-9292-6933